

德火薰才長區甲壽寧亦有母難相扶天且謫

不獲則按朴肇於羅神人從天降為羅真祖史述

為詳其世布在三韓世有聞居密者尤尊為望

在麗季有版圖判書曰思敬於公為高仁厚君子

人也朴永祿編實生忱入國朝事我聖祖有勞名載原

從券官至戶曹典書典書生剛生以儒雅顯為安

邊府齊政贈議政府贊成事贊成是生父曰

切問篤行而文卒官校書正字以公故賜忠積

德秉默祚功臣加贈議政府左贊成初密陽妣貞

敬夫人王氏方娠夢牛大如屋心異之以告贊成

贊成曰將昌兆必先意者其有兒與吾宗乎屬夫

# 紀世布

朴永祿編

會宗大派公正科氏朴密陽

---

## 默齋實紀

印刷日 2000년 3월 일  
發行日 2000년 4월 일  
發 行 密陽朴氏糾正公派大宗會 會長 朴性烈  
印 刷 學文出版(주) 代表理事 會長 金永哲  
傳統典籍文化社  
서울 鍾路區 延樓洞 7-2  
電話 738-2114

製 本 三和인쇄주식회사  
編 者 趙谷 朴永錄  
全 編 江村 朴天厚  
曹汝 朴永九  
曹岩 朴性煥

普及處 密陽朴氏糾正公派大宗會  
서울시 중구 만리동 1가 62의 11  
우편번호 100 - 371  
전화 392-5055, 392-8624  
FAX 392-4895

定價 30,000원

---



恭孝公 不祧廟 誠敬門 全景  
地址 清原郡 玉山西 新村里



恭孝公 祠堂  
地址 清原郡 玉山西 新村里

## 비명(碑銘)

신도비명  
神道碑銘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관현면 오금 2리 산19
- 시 대 : 조선조 세조 12년 (서기 1466년)
- 규 모 : 총높이 230cm, 비신(碑身)높이 178cm,  
비신(碑身)폭 77cm, 비신(碑身)두께 23.4cm

조선국 수출위사협찬정난공신

승록대부 밀산군 시공효 박공 신도비명 병서  
김 수녕(金壽寧) 지음

밀산군(密山君) 박공(朴公) 증손(仲孫) 자(字) 절음(慶胤)이 풀  
(우)하여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 그의 여러 아들들이 삼낙(上洛)  
김 수녕(金壽寧)에게 명(銘)을 요구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젊었을  
때 우리 집에 내왕하여, 우리 선군(先君)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  
칭하건대 그의 덕을 밝히고 공로를 빛나게 하여 사라지지 않게 해  
주세요.” 하였다. 이때 수녕(壽寧)도 또한 어머니의 상중에 있었으  
므로 서로 붙잡고 울었으며 또 사양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상고하여 보건대, 박씨(朴氏)는 삼락에서 시작되었다. 신인(神人)  
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신라의 시조가 되었음은 역사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의 후손들이 삼한(三韓)에 퍼져 있으며 대대로  
명문(名閥) 높은 이가 있었으니 밀양에 사는 자들이 가장 현자화  
여서 망주(望族)이 되었다. 고려의 말기에 판도판서(版圖判書)가  
있어서 <회통> 사경(思敬)이라고 하였는데, 공에게 고조(高祖)가  
되며, 인후한 글자였다. 판서가 횡(橫)을 낳았으니, 우리 나라 조경

에 들어와서 우리의 태조를 섬겨서 공로가 있었다. 이공은 원종공신(原從功臣)의 녹권(祿券)에 실리고, 벼슬은 호조전서(戶曹典書)에 이르렀다. 전서(典書)가 강생(剛生)을 낳으니, 유아(儒雅)한 것으로 명망이 현저하였다. 안변부사(安邊府使)가 되어 선정(善政)이 있었으며,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를 추증 하였다. 찬성이 공(公)의 아버지를 낳았으니, <그의 이공은> 질문(切問)이다. 행실이 온족하며 문장에 능하였고, 풀 따며 벼슬은 교서정자(校書正字)였다. 공(公)의 덕으로 순충각덕 병의 보조 공신(純忠積德兼義補助功臣)의 호를 주고,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을 가증(加贈) 하였다. 처음으로 공의 비(妣) 정경부인 왕씨(貞敬夫人王氏)가 임신하였는데, 꿈에 소가 짐만을 쓴 것을 보았다. 마음으로 이상하게 여겨 찬성에게 말하니, 찬성이 말하기를, "장차 창성(昌盛)하려면 짐조가 반드시 먼저 보이는 것이니, 내 생각에는 아이가 있다면 우리 집안을 중흥(中興)시킬 것이요." 하였다. <부인에게 아기름> 잘 거두어 양육할 것을 부탁하고 풀 하였다. 그 뒤 7개월만에 공을 낳았다. 뛰어난 영리하고 복이하여 어릴 적에도 장난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조금 성장하게 되어서는 스스로 책을 읽고 다니며 글 읽을 줄을 알았다. 15세에 성균시(成均試: 국자감시(國子監試) 즉 경시를 풀는 고시)에 합격하고, 다시 어진 스승과 우인(友人)들에게 추종하여 노닐며 학문을 심고[種學] 문장을 수련하여 선덕(宣德) 을묘년에 대과에 급제하였다. 뽑히어 집현박사(集賢博士)에 보임(補任)되고, 부수찬 지세교(副修撰知製敎)에 승진하였으며, 다시 사헌감찰 이조좌랑(司憲監察使贊佐郎)에 전보(轉補)되어 총주관을 겸직하게 하니, 더욱 명성이 있었다. 그때 성관(星官: 천문을 관찰하는 관직) 등이 학문이 흐리멍덩하고, 기술이 없으므로 세종(世宗)이 근심하여 특히 공의 벼슬을 급히서 서운 판관(書雲判官)으로 삼았다. 공이 능히 천기(天機)를 연구하고 묘리(妙理)를 다하여 조그만 차실(差失)도 없었으니, 스스로 기교 있는 역관(曆官)이라고 자부하는 자도 그에 앞서지 못하였다. 누전(累轉)하여 이조 정랑(吏曹正郎)이

되고, 지세교(知製敎)를 임임(仍任)하였으며, 첨지통배(僉知通禮)로 동첨사(同僉事)를 겸하였다. 세조가 말년에 병으로 근정(勤政) 하기에 벼슬러져서, 군기(軍機) 이외의 일은 모두 세자(世子)가 관철 하다고 하고하였다. <동궁(東宮)에 있어서> 명령의 출납(出納)은 첨사(僉事)를 겸유하였는데, 공이 그 직책을 잘 수행하여 세상의 여론이 더욱 더 그를 소중하게 여겼다. 의정부에 들어가 실상 사인(拾評舍人)이 되고, 제차 사헌부에 들어가 장령(掌令)이 되었으며, 세번에 들어가서는 집의(執義)가 되었다. 그가 사헌부에 있어서는 홀로 고상한 정명(淸名)을 찾고 적양(激滄:격발하여 함침) 하는데, 충절을 다하니 조정의 기강이 정수하여 지며, 낭관(郎官)이나 사인(舍人)이 되어서는 단정하고 고야하여 은연(隱然)히 공보(公輔:상공(三公) 사보(四輔) 즉 임금을 보좌(輔弼)하는 대신)의 기상이 있었다. 재간 있는 관리로 영장(榮進)하여 지병조사(知兵營事)를 겸직하였으며, 얼마 안 되어 불리어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가 되었다. 경태(景泰) 제유년 문예 임금이 친히 과거를 보며 현미를 뽑았는데, <그 때> 공이 대독관(對讀官)이 되었다. 겨울에 지금 임금에서 내강을 명정하는데, 공(公)이 추요(樞要)의 위치에 있어서 마음을 함하고 힘을 다하여 결에서 도와서 성취하게 하였는데, 모계(謀計)는 적절하고 일은 이루어져서 공의 공로가 컸다. 드디어 병조참판 지경연사(兵曹參判知經筵事)를 제수하고 백의 어려운 일은 공을 기다려 진정하였다. 공로를 기록하여 수충위사 협찬점년공신(輸忠衛社協贊績難功臣)의 호(號)를 내리고 음천강(凝川君)을 봉하였으며, 그의 열골을 그려서 영부(盟府)에 잘 간직하였다. 병조로부터 한성부윤(漢城府尹)에 옮겼으며, 다시 사헌부(司憲府)에 들어가서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다. 공조(工曹)·이조·형조·세조 를 4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고치야 밀산군(密山君)에 봉하였다. 가는 곳마다 능히 대강을 파악해 가지고, 까다롭고 세칙(細績)한 것에 힘쓰지 아니하였다. 사람을 천거하고 형무(刑徒)를 위논하는데 공평하게 하고 아첨하지 아니하였다. 대강을 다스리고

빈객(賓客)을 접대하며 제사를 받드는 일이 찬명하게 빛이나서 불만하였다. 세상에서 여진 재상이라고 일컬었다. 천순(天順) 명자년 봄에, 과거의 시관을 맡았으며, 승진하여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이 되고, 얼마 안 되어 좌참찬(左參贊)에 승진되었다. 기묘년 봄에 또 과거의 시관이 되었고, 전후를 통하여 무릇 세 번이나 과거(科試)를 고선(考選)하였으므로 명사를 많이 알았다. 나중에 〈어머니〉 정경부인(貞敬夫人)의 상사를 당하였다. 대몽함을 극진히 하여 몸이 바짝마르고 여위어서 여만 남았다. 상기(喪期)를 마치게 다시 밀산군(密山君)을 봉하고, 위계(位階)를 승록대부(崇祿大夫)로 올리었다. 성화(成化) 2년 여름 5월 병신일에 정침(正寢)에서 죽하니, 나이 55세였다. 부고를 듣고, 임금이 매우 상심하여 정사(正史) 쓰는 것을 중지하고, 관림에게 명하여 상가(喪家)에 가서 조문하게 하였으며, 사제(賜祭)하고 부의(綽議)를 내려 주었으며, 이름을 증효(蒸孝)라고 하는 시호로 바꾸었다.

군(君)은 성실한 선인(善人)이다. 온후하고 저계(豈弟:편안하게 즐기는 것)하다. 여양 선군(先君)의 생시(生時)에 나지 못하였음을 생각하고 슬퍼하여 삼지 못할 것같이 하였다. 모부인(母夫人)을 섬기는데, 효도를 돈독하게 하여 그의 뜻에 어긋날까 두려워하였으며, 행을 섬기는 것을 어머니를 섬김과 같게 하였다. 일족(一族)과 민척의 음함을 전혀 주는데, 재물을 기우려 스스로 힘을 다하였다. 상업(產業)은 저우 족할 정도만 취하고 따로 넉넉하기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스스로 살నే데 있을 때나 집대하고 서모 사위여 노닐 때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 편함이 없고 몹시 열렬(熱烈)하게 하지도 않거니와 또한 특별하게 남과 다른 행동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정사(政事)에 봉사하는데 능통하여, 일에 담판하여도 억류가 있었으며, 일찍이 또그마한 힘세도 형적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공훈(功勳)과 명성이 더욱 높아질수록 마음은 더욱 겸손하며 낮추었다. 어떠한 권력 있는 작위를 받았으나 문(門)에는 잠된 손이 없었다. 항상 집에 거처하면서 글을 지어 아들을 훈계하였는데, 대적

고금(古金)의 사치와 검소, 그리고 풍고 나뉘던 형질(形跡)을 논한 것이었다. 또 술을 경계하는 명을 지어서 과학의 열에 걸어 놓아 스스로 경계하고 인하여 여러 아들들을 편달(能達) 하였으니, 그 말이 잔탁하면서도 심친한 <뜻이 있어서> 또한 세상의 통제(統制)가 될 만하였다고 한다. 그 해 7월 임진 일에 예를 갖추어 교하현(交河縣)의 부주 탄포(炭浦) 도고미리(烏告美里)에 장사(葬事) 하였다. 부인 남평현 문씨(南平縣文氏)의 무덤과 더불어 같은 언덕이나 땅혈(墳穴)은 다르다. 부인은 즉 공조정랑(工曹正郎) 문 승조(文承祚)의 딸이니, 맑고 아름다우며 여진 행실이 있었다. 덕 높은 남편에게 배필이 되어 여진 아들을 양육하였으며, 집안을 바르고 아담하게 다스리었다. 공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3남 2녀가 있는데, 딸 아들은 <이름들> 남(南)이라고 하며, 부평도호부사(富平都護府使)의 <비술에 있다>, 차남(次男)은 미(緇)니 한성 서윤(漢城庶尹)이다. 삼남(三男)은 건(健)이니 승정원 우승지(承政院右承旨)이다. 둘째와 끝이 모두 문학(文學)에 <역량이>있어서 과거에 합격하여 부조(父祖)의 업을 이어받아 이루었다. 끝이 바로 수녕(壽寧)과 동년(同年) 금제하였다. 딸딸은 또한 먼저 물 하였다. 다음은 전섭사수(典設司守) 유 오(柳鵠)에게 시집갔다.

부평도호부사가 첨지 중추(僉知中樞) 윤 삼산(尹三山)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 2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이름들> 인렬(仁烈)이라고 한다. 음직(陰職)으로 통사람(通仕郎)에 제수 되었다.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한성 서윤이 지돈녕(知敦寧) 장 석덕(姜碩德)의 딸에게 장가들어 5남 1녀를 낳았으며, 우승지가 서윤(庶尹) 최 윤(崔鈞)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1녀를 낳았는데 모두 어리다. 전섭사수 유 오(柳鵠)가 딸 하나를 낳았다. 사직(司直) 윤 민(尹閔)에게 시집갔으니, 또한 대대로 벼슬하는 집안이다. 명(銘)이 이르기를, "박씨의 조상(祖先)은 일찍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의 전통은 구천한데 있어서 끊임없이 이어오는 귀인들, 삼한의 명족(盟族)으로서 밀양(密陽)에서 가장 번성하다. 권도판서 공은 어질고 관후(寬厚) 함



이 옛날의 의견 사람과 필적(匹敵)하였다. 몸소 수고하시어서 후손에게 <덕을> 업어 주었으며, 찬성(贊成)에 이르러서는 계부실을 알았으나 보람은 가뻐왔더니, 정사는 공(公)을 기다려 정통하였다. 공은 그 나심이 기이하였으니, 소[牛]꿈이 상서로웠다. 찬성공이 <좋은 꿈이라고> 짐작하니, 공은 <과연> 그 가문을 세가(世家)로 만들었네. 덕이 높고 올라가니 밭남이 성대하여 이름을 <성균사(成均試)와> 과과의 <과방(科榜)역> 걸었네. 아버이를 섬기는 데는 효도하고 동손라피, 남을 대우하는 것은 관대하였고, 임금을 받드는 데는 충성을 다 하였네. "형신(學臣)이 오래 고안하여 조정의 책독(勅毒)을 의뢰서 이지 않으니, 임금이 그 요망함을 제거하여 보지 올라온 공을 드러내실 때, 함의하여 도우 이는 오직 공이어서는 "공경(公敬)의 공훈을 세기였다. 공(公)의 명성은 높고 높지만 공은 더더욱 몸을 낮추었네. 그리하여 잘 보충(保肅:공인은 사람을 편안하게 함) 하게 함) 하게, 노니는 마음 소탈하고 담박(淡泊)하여 사치를 검지하고 검박한 것을 즐겼하여 자손에게 "약석(藥石)이 될 존재를 남기었네. 천한 이가 반드시 함성(器盛)하는 것이 아닌가. <공이 55세의> 중년(中年)으로 세상을 떠리었으므로 저 하늘을 무히려보노라. 아름다운 자손들이 공의 가문의 행복하게 했으니, 공은 일이 존재 하시도다. 이에 필의 글을 세지 아름다운 광채를 드러우나니 나라와 더불어 같이 없으리라."

1466년(성화 2년 세조 12년 정해) 7월 일 세우다

36) 요망하고 양명된 지술까지  
 27) 공의고거리의 공과 공, 그 뒤공에 확정한 공  
 28) 공역가 되는 말

【原文】 恭孝朴公仲孫神道碑

- 所在地：京畿道 坡州市 炭郡面 吾令 2里 山十九
- 時代：朝鮮朝 世祖 12年 (西紀 1466년)
- 規模：總高 230cm, 身高 178cm, 身幅 77cm,  
身厚 23.4cm

【碑文】

恭孝朴公墓碑(篆題)

有名朝鮮國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崇祿大夫密山君諡恭  
孝朴公神道碑銘 并序

……上洛伯 金壽寧 撰  
中樞府知事 成任 書  
刑曹參判 鄭蘭宗 篆

密山君朴公仲孫字慶胤。卒將葬。其諸孤徵銘於上洛金壽寧曰。予少來往吾家。最爲知先君。請較德悼勤。不朽是圖。時壽寧亦在母報。相持哭。且謝不獲。則按朴筆於羅。神人從天降。爲羅鼻祖。史速爲詳。其後世布在三韓。世有聞。居密者尤著爲望。在麗季有版圖判書曰思敬。於

公爲高，仁厚君子人也。判書生忱，入國朝事我 聖祖有勞，名載原從券，官至戶曹典書，典書生剛生，以儒雅顯，爲安邊府有惠政，贈議政府贊成事。贊成是生公父曰切問，篤行而文，卒官校書正字，以公故賜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加贈議政府左贊成。初公妣貞敬夫人王氏方娠，夢牛大如屋，心異之，以告贊成。贊成曰將昌兆必先，意者其有兒興吾宗乎。屬夫人善收而卒，居七月公乃生，秀朗穎異，弱不好弄，少長自知挾筴讀書，十有五，中成均試，更從賢師友遊，種學績文，以宣德乙卯，擢第選補集賢博士，陞副修撰知製教，再轉司憲監察史曹佐郎，兼職春秋館，益有名，頃時星官類憎學無術，世廟憂之，特屈公爲書雲判官，公能研幾畫妙，無抄忽差失，自巧歷莫之先，累轉吏曹正郎，仍知製教，以僉知通禮兼同詹事，世廟末年，疾倦勤，教自軍機外悉聞決，世子，出納繇詹事，公善於其職，物論愈重焉，入議政府爲檢詳舍人，再入司憲府爲掌令，三八爲執義，其在臺，獨持風裁，激激自効，朝綱爲肅，爲郎舍則端重高雅，隱然有公輔望，以能官進，兼知兵曹事，尋擢爲承政院同副承旨，累升爲都，景泰癸酉春，親試策士，公爲對讀官，冬，今 上靖內難，公在樞要，協心畢力，左右贊襄，謀得事濟，公功爲多，遂除兵曹參判知經筵事，屬時艱，須公鎮之也，錄功賜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號，封凝川君，圖其形藏在盟府，繇兵

高宗皇帝實錄卷之六十一

曾移尹漢城府。復入司憲府爲大司憲。歷工吏刑禮四曹判書。改封密山君。所至能挈持綱維。不務苛細。萬人灑獄。用公平不阿。治大賓祭粲然可觀。世稱良宰相。天順丙子春。掌試。進拜議政府右參贊。尋升左。己卯春。又掌試。前後凡三考。第多知名士。秋丁貞敬憂。盡哀柴毀骨立。服闋。復封密山君。進階崇祿。以成化二年夏五月丙申。卒于正寢。壽五十有五。訃聞。上痛傷罷朝。命官臨弔賜賻祭。易名恭孝。君恂恂善人。溫厚豈第。每念不逮先君。卽若無生。事母夫人篤孝。猶恐昧其志。事兄如事所天。隸宗廟之急。傾財自盡。產業取財足。不別求贏。自居室與待交遊。持一心不變。不爲翕翕熱。亦不爲崖異行。達於從政。臨事有裕。未嘗幾微露形迹。勛名愈隆。心愈謙下。累典權柄。門無雜賓。常居虛。以書誡子。大抵論古今奢儉失得之迹。又作戒酒銘。揭座右自儆。因貶諸子。其言約以遠。亦可爲世誡云。遷以其年七月壬辰。以禮葬于交河縣北炭浦烏告美里。與夫人南平縣文氏。同原異壙。夫人則工曹正郎承祚之女。淑美有賢行。德毓賢。允宜家室。先公卽世。有三男二女。男長曰衮。富平都護府使。次曰楮。漢城庶尹。次曰楛。承政院右承旨。仲季俱有文學。中科濟美。季卽壽寧。同年及第。女長亦先歿。次適典設司守柳鳩。府使娶金知樞尹三山女。生一男二女。男曰仁烈。蔭授通仕郎。餘幼。庶尹娶知敦寧姜

碩德女。生五男一女。承旨娶庶尹崔昫女。生三男一女皆幼。司守生一女。適司直尹璘。亦世族也。銘曰。

繫朴之先。肇降自天。有遠其傳。繩繩衣冠。望于三韓。莫盛密山。版圖仁厚。古人與偶。勛躬盡後。爰暨贊成。施重報輕。政待公亨。公生也奇。夢牛維禮。贊成占之。公世其家。揭德振華。名挂賢科。事親孝恭。待人則容。奉上則忠。孽臣昔驕。毒亂于朝。王殄厥妖。丕顯神功。贊贊惟公。勅勅景鍾。公名隆隆。公愈躬躬。以克保庸。游心沖泊。微汰意約。遺誠鑿石。善不必昌。中身云亡。奧瞻蒼蒼。藹藹蘭蓀。森立公門。公乎長存。爰刻銘章。式垂休光。與國無疆。

1466년(成化 2年 丙戌) 七月 日 立

[考證資料 481쪽 九七]

### 김 수녕(金壽寧)의 약력

- 공묘공파 신도비명공 제였으며 이공은 동문선에 올라 있다[神道碑銘撰] -

목양군(福昌君) 김 수녕(金壽寧)이 자(字)가 이수(潞史)이고, 호(號)가 양소당(養素堂)이며, 안동인(安東人)으로, 정종 장군(折衝將軍) 김 수(金濬)의 아들이다. 어려서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7세(歲)에 속문(屬文)에 능하니 당시에 신童(神童)이라고 칭찬했다. 그의 외조부(外祖父)인 좌참판(左參贊) 안 승선(安崇善)이 지이하게 여겨고 사랑하여, 일찍이 말하기를,

“이 아이가 다른 날 따랐던 제상에 크게 날릴 것이다.”

라고 하였다. 나이 18세가 되던 해 봄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고, 가을에 문과(文科)에 제1인으로 뽑혀서 집현전 부주판(集賢殿副修撰)을 제수(除授)받았으며, 경조 좌랑(兵曹佐郎)·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예문관 응교(藝文館應教)

를 역임하였다.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 법자중추원사(法字中樞院事)에 임명되었고, 또 예조 참의(禮曹參議), 다시 좌승지(左承旨), 공조 참의(工曹參議), 형조 참의·호조 참의를 역임하였다. 가선 대부(嘉善大夫)로 승진하였고, 대사간(大司諫)으로 임명되었다. 세조(世祖)와 예종(睿宗)의 두 《왕조실록(王朝實錄)》을 참찬(參贊)하였다. 승상 파리 공신(純誠佐理功臣)의 칭호를 하사 받고 옥장공(福昌公)에 봉(封)되면서 가선 대부(嘉善大夫)로 승진하고, 호조 참판(戶曹參判)·공조 참판(工曹參判)을 역임하다가 이 때에 다시 옥장공에 임명되었다. 1473년(성종 4년 윤5월 3일(壬辰) 졸(卒)하니, 나이가 38세였다.

공도(文道)라고 시호(諡號)하니 두루 문고 많이 본 것을 문(文)이라 하고 중년(中年)에 일찍이 죽은 것을 도(悼)라고 한다. 짐 수녕은 천거(天資)가 명인(明敏)하고 학문이 배학(該博)하여, 문장(文章)을 짓는 것이 날마다 되어나고 강고(剛古)하며, 필(筆)을 잡으면 바로 삼위하여 전인(前人)의 말을 답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슬로 세 줄 것이 없어서, 이 때문에 새삼(誇文)으로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적다. 바깥으로는 온화(溫和)하고 안으로는 정직(剛直)하여서 진실로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비록 달관(達官)이나 귀요(貴要)라 하더라도 동일로써 마주 대(對)하여 일찍이 그와 더불어 말을 할 수가 없었으나, 만약 그 격양한 사할일 때에는 비록 위호(訶布)의 언비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함을 품고 나아가 맞아붙었다. 산열(山葉)을 경멸하지 아니하고 횡상 국(橫上國)만을 받아서 먹었는데, 남의 일을 잘어 참변서도 종간로써 저세함이 품을고 넣었으며, 작은 언고를 가늠하여 버려두지 아니하였다. 대반 일일이 많아 온 소리를 지니 증자(增子)의 근목(謹默)하는 위용(偉容)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이것을 그의 단점으로 여겼다.

## 성 임(成任)의 약력

- 신도비명의 을지를 쓰다[神道碑銘書] -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성 임(成任) 자(字)는 공경(公卿)이고 자호(自號)는 일재(統齋)이고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지중추부사 성 임조(成念祖)의 아들이다. 정통(正統) 무오년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入格)하고, 정묘년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처음에 승문원(承文院)에 봉직(分屬)되었다가, 얼마 안 가서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에 초배(超拜)되었다. 성균관 주부(成均館主簿), 법조 좌랑(兵曹佐郎)에 제배(除拜)되고, 집현전 부교리(集賢殿副校理), 이조 정랑(吏曹正郎),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이 되고, 중시(重試)에 합격하여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에 초수(超授)되고, 전사재암사(判司宰監事)로 옮겨고, 문신 정시(文臣庭試)에